

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0. 8. 20.(목), 17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진호 (044-215-2850)	담당자	김경록 사무관(044-215-2853) 이태윤 사무관(044-215-2851)
	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 이차웅 (044-215-2810)		윤현곤 사무관(044-215-2812) 김태경 사무관(044-215-2813)
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명섭 (044-201-3317)		허 온 사무관 (044-201-3324)
	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정구현 (042-481-2359)		유수덕 사무관(042-481-6952)
	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정동욱 (042-481-2264)		김나리 사무관(042-481-2565)

제목: 정부는 국가 통계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보도 참고 배경

- '20.8.20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부동산, 고용 등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통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물타기 하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* 조선일보(8.20), "통계기준 갈아엎는게 文정부의 상투적 수법.. 숫자는 죄가 없다"
"전세대란 터지자, 전세값 통계방식 바꿔 물타기"
"부동산 분노에 또 물타기. 재작년 소주성 통계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"
(소득분배가 악화되자 통계조사방식 변경, 비정규직 근로자 폭증 등)

* 서울경제(8.20), "정부 이번엔 전세통계 수정... 현실 외면한채 통계만 손대나" 등

○ 이에 따라 언론의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
전세가격 동향조사 관련

-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전체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시장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.
- 감정원 조사자가 중개업소를 통해 파악되는 시세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파악되는 거래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임대료 상한제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.
- 그러나 중개업소의 계약이나 확정일자 신고가 없는 갱신계약은 현행 조사방식 상 동향조사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
- 어제 ‘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’에서 언급된 전세통계 개선은 임대차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조사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,
-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방식은 아니라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완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.
-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뢰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갱신 계약 등 시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갱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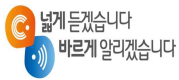
분배·고용 통계 관련

- (분배) 2019년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해 「가계동향조사」를 개편했으며, ‘개선된 숫자’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.

* 전용표본 활용(기존 경찰인구조사 다목적 표본)으로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, 조사기간을 단축(36개월 → 6-6-6 연동조사)하여 표본가구 응답률을 제고

- 통계개편 전·후 분배지표는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개선여부 비교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- (고용) 2019년부터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시 국제기준 적용을 위해 ILO 개정분류체계에 따른 병행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.
 - 이에 따라 비정규직·정규직 근로자의 전년 대비 수치 비교가 불가능해졌으며, 국가통계포털에도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.

[별첨] 통계청 관련 보도설명자료('20.8.20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보도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08. 20.(목)	 통계청
담당부서	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	
가계수지동향과	과 장: 정구현(042-481-2359)	
	사 무 관: 유수덕(042-481-6952)	
고용통계과	과 장: 정동욱(042-481-2264)	
	사 무 관: 김나리(042-481-2565)	

「부동산 분노에 또 통계 물타기 재작년 소주성 통계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」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

- 조선일보 '20.08.20.(목) -

<언론보도내용>

- ☐ 조선일보는 “소득분배가 악화할 때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해 개선된 숫자를 내놨다”라고 보도
- ☐ “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...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”라고 보도

<설명내용>

- ☐ 통계청은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체계로 표본변경 등 조사방식을 개편하였음
 - 기존방식 조사와 소득·지출 통합조사 결과는 표본체계, 조사 방법 및 추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할 수 없음
따라서 “개선된 숫자를 내놨다”라는 내용은 적절치 않음
- ☐ '19.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前後 비정규직 등 조사방식을 변경한 바 없으며,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한 결과임
 - 또한, 국가통계포털에는 2019년 자료가 병행조사 효과로 전년도와 증감을 비교할 수 없는 등 유의사항도 게시중임